

韓國 竹枝詞 資料 集成의 필요성과 의미*

-그 방법론을 곁하여-

김 영 죽**

< 目 次 >

- | | |
|----------------|-------------------|
| I. 竹枝詞 자료의 가치 | III. 남는 문제 및 기대효과 |
| II. 집성의 기준과 방법 | |

<국문 초록>

竹枝詞는 중국에서 기원한 문학 형식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시인들이라면 함께 공유했던 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죽지사의 개념과 변천 양상은 『歷代竹枝詞』의 前言과 『清代海外竹枝詞』의 序, 『竹枝詞發展史』 등에 간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 집성 필요성의 제기에 앞서 죽지사 기원, 형식과 명칭(同體異稱)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죽지사는 唐-宋-元-明-清代를 거쳐서 여러 가지 칠언사구 외에도, 六言/五言四句의 형식으로 창작되었기에 七言四句만의 단선적 비교 속에서는 '죽지사의 형식은 이러한 것이다.'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지사는 강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공간을 구성하는 物的, 人的 정보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한문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문학, 정의를 말하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론회자인 성신여대 손유경 선생의 질의와 토론에 힘입어 개고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 wenxue@hanmail.net

를 가장 간명하고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초기의 小詩의 형태에서 장편의 연작시나 조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간다. 이 외에도, 독자를 의식한 작자의 주가 첨부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명대와 청대, 조선에서는 후기 죽지사에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죽지사 자료 집성은 무엇보다도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가능하게 한다. 작자층은 물론이고, 그들이 작품의 소재로 삼은 지역의 특색,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이 동일한 題下에서 변주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죽지사가 다량 제작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종의 '경향성'이 감지되는데 이것이 과연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소외된 지식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계층성'에 기인한 것인지도 방대한 자료 집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풀리는 문제이다.

집성의 기준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집성 과정 또한 한 개인 연구자가 수행해 내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죽지사 자료 집성에 있어 그 선별 기준과 취합 방식, 합리적 구현 등 대한 문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죽지사, 악부시, 자료집성, 데이터베이스

I. 竹枝詞 자료의 가치

죽지사는 명실상부 중국에서 기원한 문학 형식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시인들이라면 함께 공유했던 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죽지사의 개념과 변천 양상은 『歷代竹枝詞』¹⁾의 前言과 『清代海外竹枝詞』²⁾의 序, 『竹枝詞發展史』³⁾ 등에 간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⁴⁾

1) 王利器, 王慎之, 王子今 輯, 『歷代竹枝詞』 5책, 陝서성인민출판사, 2003.

2) 王慎之, 王子今 輯, 『清代海外竹枝詞』, 북경대학출판사, 1994.

3) 孫杰, 「竹枝詞發展史」, 復旦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12.

4) 대다수의 선행 연구 논문들은 아마도 이들을 참고하여 중국 죽지사의 개념을 정리한 듯하다.

자료 집성 필요성의 제기에 앞서 죽지사 기원, 형식과 명칭(同體異稱)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 죽지사의 기원에 대한 說

‘竹枝’는 그 초기에는 본래 民間에서 부르던 歌詠의 형식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세 지역의 소수민족이 부르던 歌體로서 ‘夷歌’ 혹은 ‘俚辭(詞)’에 그 근원을 두고, 그 지역의 民俗과 風情을 체현해낸 것이다. 그러나 唐代의 劉禹錫을 필두로 하여⁵⁾ 白居易 등의 문인들이 竹枝體를 취하면서 이는 소수 민족의 土歌 혹은 民歌가 아닌 일종의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문인 죽지사의 출발이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유우석보다 70년 앞선 당 顧況의 「竹枝曲」을 가장 이른 시기의 죽지사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유우석을 문인죽지사의 효시로 보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한편 죽지사의 발생 기원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⁶⁾ 多岐한 논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대략 두 가지의 흐름이다.

• 九歌 기원설:

시대적으로는 唐 이전인 六朝시대까지 소급하며, 지역 역시 巴渝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湘水일대(廣西省과 湖南, 湖北省을 포함한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역사상 巴渝와 荊楚지역은 백성들의 생활방식, 문화 방면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설정이다. 또한 당대 유우석이 문인 죽지사의 효시 및 전파자로서 인식되지만, 그가 郎州(지금의 湖南省 常德)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里辭를 짓기도 하고

5) 『新唐書』, 「劉禹錫傳」, “禹錫遷連州刺史 未至斥郎州司馬, 州接夜郎諸夷, 風俗陋甚, 家喜巫鬼, 每詞歌竹枝鼓歌徘徊, 其聲儉俚, 禹錫謂屈原居沅湘間作九歌, 使楚人以迎送神, 乃倚其聲, 作竹枝詞十餘篇, 於是武陵夷俚, 悉歌之”

6) 李良品, 「竹枝詞源流考」, 『重慶教育學院學報』 13집, 2000.

屈原의 작품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계발 받은 부분이 상당하다는 의견 또한 많다. 때문에 죽지사의 연원은 楚歌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季羨林은 『清代海外竹枝詞』序에서 “죽지사의 情趣는 비교적 楚辭의 「九歌」등, 荊楚문학작품과 비슷하다.”라 하였다. 즉, 파유와 형초를 동일한 문화권으로 간주했기에 가능한 설정이다. 굴원이 창작한 「九歌」는 본래 민간의 제사에서 사용되었고 그 정서상 자신의 悲感和 苦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초기 죽지사의 특색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蘇軾의 「竹枝歌」并 跋에서 “죽지가는 본래 楚聲이니, 깊은 원망과 슬픔을 지니고 있다[竹枝歌本楚聲, 幽怨惻怛]”라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초나라의 祭式에 쓰이면서 노래는 정형화되어 이것이 죽지사의 형식을 만들어 내었고, 사대부 문인들이 이 형식을 빌려 끊임없이 창작을 시도한다.7) 결과적으로, 죽지사의 민간제사 기능이 점차 없어지자 당대 유우석을 전후로 하여 지역의 풍토와 특색을 담아내는 ‘지역정보’적 요소가 한층 부각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죽지사의 모습을 띄게 된 듯하다.

청의 왕사정이 주목한 언급한 ‘泛詠風土’가 죽지사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대로 갈수록 竹枝風土의 관계가 부각되는 것이다. 국내 학계의 연구자들은 대략 다음의 범주에서 죽지사의 기원을 이해하고 파악한다.

7) 그러나 필자의 管見으로는 죽지사에는 구가와 같은 迎神歌의 성격이 없다는 점에서 죽지사의 원형을 ‘구가로 직접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구가는 11편의 영신가이지만, 굴원이 현지 민간의 무속이나 풍속에 관심을 두고 입의로 개량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굴원의 자의적이고도 개성적 취합, 해석이라는 방식을 유우석도 湖北과 四川의 민속, 민요를 채록하여 죽지사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민가의 틀을 빌어 情趣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지, 구가=죽지사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 樂府說:

竹枝詞는 넓은 의미의 악부에 포함된다. 본래 중국 한무제 때 창설된 상림악부라는 어가소의 명칭에서 비롯되어 민가에서 채취해 관현에 올려 노래 부를 수 있었던 協律된 시를 일괄 악부라 칭했는데, 그 개념의 내포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⁸⁾ 악부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대에 따라 혹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내포를 지녔지만 대체로 민가풍을 띤 것을 지시했던 점에서 공통된다. 가령, 「耽津樂府」, 「關西樂府」 등은 악부에도 속하지만 죽지사 형식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⁹⁾ 광무친의 『樂府詩集』, 조선시대 악부선집인 『樂府新聲』¹⁰⁾에 죽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일부 근거가 될 수 있다. 황위주 교수는 宮司와 죽지사를 중요한 악부시 경향의 하나로 부각시켰고, 칠언절구의 악부시적 특징과 기능을 인식, 하나의 작품적 전형으로 정립시키고자 했던 점을 거론하였다. 『시림악부』와 『악부신성』에 수록된 작품을 토대로 16세기 문인들은 죽지사를 악부시의 중요한 형태로 생각했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2. 죽지사 형식과 명칭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同體異稱

• 狹義의 죽지사

협의의 죽지사라 함은, 제목에 ‘죽지사’라 정확하게 제시한 작품들을 의미한다. 竹枝詞는 ‘詞’라 명명하지만, 기실 ‘詞’의 특성은 없으며, 엄연한 詩이다. 유우석이 시작한 문인 죽지사의 기본 형태는 七言四句로서 七言絕句

8) 심경호, 「해동악부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석사학위논문, 1981.

9) 정숙인, 「『해동죽지(海東竹枝)』에 나타난 세시풍속(歲時風俗) 고찰(考察)-「명절풍속(名節風俗)」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33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0)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이 비열(批閱)하고 차천로(車天輅, 1556-1615)가 교선(校選)한 책으로, 최경창(崔慶昌, 1539-1583), 백광훈(白光勳, 1537-1582), 임계(林埜, 1549-1587), 이달(李達, 1539-1612), 이수광(李睟光, 1563-1628) 등의 의악부시(擬樂府詩) 169수가 수록된 1책의 악부시선집(樂府詩選集)이다.

(근체시)와 유사함을 보인다. 칠언절구와 칠언사구 죽지사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하지만 대체로 죽지사는 율격에 엄격하지 않아 拗體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설이 있다. 또한 乾隆연간의 시인 全良籟은 顧瑤光의 「虎口竹枝詞」 서문에서 “죽지사는 樂府詩이며, 今體詩의 칠언절구와는 판연히 다르다.”라 하면서 그 원인을 악부가 지닌 독특한 音樂節奏라 하였다. 송대 이후 그 음악성은 탈각되어 청대에 이르러서는 이 특징을 명확하게 고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죽지사에는 여전히 ‘方言俚語’, 즉 음영대상 지역 특유의 말과 정서가 스며들어 이것이 근체시 七言絕句와 차별성을 준다는 것이 전양택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는다.

죽지사는 唐·宋·元·明·清代를 거쳐서 여러 가지 칠언사구 외에도, 六言/五言 四句의 형식으로 창작되었기에 七言四句만의 단선적 비교 속에서는 ‘죽지사의 형식은 이러한 것이다.’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의 창작 방법에 따라서 七言二句, 七言五句, 五言四句의 죽지사 또한 존재한다. 특히 청대로 갈수록 七言四句의 범위를 넘어서는 變格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의 역관 시인이었던 金奭準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그는 일본을 소재로 한 「和國竹枝詞」에서 五言律詩 22首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죽지사는 초기에 단편의 小詩 형태, 즉 七言四句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대형의 組詩 형태로 발전한다. 특히 강한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여 그 지역의 풍물과 습속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담아내는 데에는 짧은 小詩의 형태보다 장편의 연작시나 조시 형태가 정보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사료적 가치까지 내포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¹¹⁾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 본문 외에 작자의 自註가 첨가되는 형태가 생겨나는데 명·청대의 죽지사들 다수가 이런 형태를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죽지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조선 전기보다 후기로 내려오면서 組詩 양상이 드러난다.

11) 신하운, 「죽지사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제3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p.232. 참조.

• 廣義의 竹枝詞

죽지사를 연구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바로 '광의의 죽지사'에서 발생한다. 광의의 죽지사는 제목에 죽지사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죽지사의 범주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명 죽지사의 전통적인 제목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歷代竹枝詞』 및 『中華竹枝詞全篇』, 『清代海外竹枝詞』에 選篇해 놓은 죽지사들을 살펴보면 그 詩題가 모두 '○○죽지사'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清代로 접어들면서 제목에 棹歌, 衢歌, ○○雜詠, ○○雜絕, ○○紀事詩, ○○雜事詩에서부터 ○○(지명)百詠, ○○(八景, 十景 등등)이의 7언 4구 시들을 '竹枝體'라 칭했다. 특히 清代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확연해진다. 일반적인 죽지사 詩題인 '지명명+죽지사'의 형태에서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죽지사에 실린 내용과 소재의 범주가 훨씬 광범위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죽지사는 短形詩에서 조시 형태로 형식적 측면에서도 일련의 변화를 보였으나, 소재적인 면에서 역시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죽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소재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竹枝類와 흡사하다면 이를 죽지사의 범주 안에 허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득공의 『二十一都懷古詩』나 『熱河紀行詩注』 '회고시' 혹은 '기행시'라는 소재와 양식의 특성을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詩注가 붙은 죽지사 연작시 전통의 범주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죽지'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지역의 고사, 승경 풍속을 시의 소재로 취하고 내용 속에 민간정서를 구현한다면 '죽지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광의의 죽지사에서 방점은 紀俗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를 죽지사라 단언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에 필자는 본고에서 이를 '죽지사류'라 칭하고자 한다.¹²⁾

12)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가 「추재 조수삼의 죽지사류 창작에 대한 일고찰」(『한문학보』 21집, 2009.)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자료적 가치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헌에 남겨진 죽지사를 집성해야하는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는 그 자료의 가치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죽지사류의 가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 문학과 史料의 접점

시로서 문화읽기의 가장 적합한 형식이 죽지사류가 아닐까 한다. 이미 한국과 중국학계의 연구에서 죽지사류의 地方志적 역할에 주목해왔다. 초기에는 낭만적이고 애절한 정조를 띤 남녀 간의 애정을 읊은 죽지사와 특정 지역의 유적, 풍물, 자연 경관을 읊은 죽지사가 혼재되어 창작되어 있다. 낭만적 정조는 사라지고 지역의 풍속이나 민간의 瑣事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지역의 풍경을 읊는 것에서 역사 회고, 현실비판 등의 소재로 외연을 넓혀 왔다고 볼 수 있다. 회고일 경우 그 지역의 時空을 연결하는 셈이다. '같은 형식'의 시 창작에 참여해 그들이 사는 當代의 사회 문화를 감성적으로 담아내낸 것이다. 이는 죽지사류의 '詩史'기능을 의미하기도 한다. 19세기 대표적 시인인 玉垂 趙冕鎬의 죽지사가 이를 증명한다.

•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한시 형식

청대에 와서 시와 산문의 결합이라는 형식의 죽지사가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일종의 기이한 현상이다.¹³⁾ 조선 후기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기실, 중국에 그 원류를 두고 있는 죽지사류에서 한국 죽지사 고유의 특성과 개념을 찾아내는 작업은 지난하다. 중요한 것은 죽지사라는 형식이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

13) 신하윤, 앞의 논문 참조.

는데 있다. 즉 조선후기에 들어서 죽지사류가 어떠한 연유로 다작화 되었는가, 지식 정보가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이를 기록·활용하려는 상황 속에서 한시의 '죽지사'라는 형식이 산문의 서사성과는 또 다르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再考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죽지사는 본래 7언 4구의 단형시에서 출발하였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형식이 변모된다. '小注'가 附記되거나 장편 연작시의 형태로 발전하여 漢詩 또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정보 전달의 기능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시대와 개인의 수요가 합쳐져 만들어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해외 견문을 소재로 한 죽지사류가 폭증한 것도 이에 기인한다.

竹枝詞類는 시인이 직·간접으로 경험한 시공간에 대한 기록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면, 그것도 詩로서 전달하려면 과연 어떠한 형식의 시를 취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할 수 있다.

<표 1> 중국, 일본 죽지사 자료집의 현황

	연도	서명	작자	편수	발행
1	2007	中華竹枝詞 全篇	丘良壬, 潘超, 孙忠铨 편	6,054편 69,515수	北京出版社(7책)
2	2003	歷代竹枝詞	王利器 等 편	25,000여수	陝西人民出版社(5책)
3	1997	中華竹枝詞	雷梦水, 潘超, 孙忠铨, 钟山 편	21,600여수	北京古蹟出版社(6책)
4	1994	清代海外竹枝詞	王慎之 輯	1,370수	北京大學出版社(1책)
5	1931	日本竹枝詞	伊藤信 著	38제	華陽堂書店(3책)

<표 2> 일본 죽지사 자료집



II. 집성의 기준과 방법

1. 기초조사

앞서 죽지사의 형식과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감안하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죽지사류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고증 등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던 이유는 『중화죽지사전편』, 『역대죽지사』, 『청대해외죽지사』를 집성한 후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무천의 『악부시집』 이후, 악부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맥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죽지사류는 지역의 풍토를 다룬 일종의 '약속된' 형식의 시체이다. 때문에 악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틀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낼 수 있다. 죽지사라는 틀은 같지만, 중국과 한국의 그것은 분명 판이하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자국의 죽지사류 자료 집성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집성에 앞서 대상이 되는 자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취합해야 하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논의된 죽지사의 기원과 명칭의 설이 분분했지만 죽지사라면 기필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들이 있다.

- a. 특정의 제목: 竹枝詞, ○○雜詠, ○○雜絕, ○○紀事詩, ○○雜事詩 (단, ○○은地名)

중국학계를 기준으로 보자면 상기한 제목 외에도 棹歌나 衢歌 등(경우에 따라서는 柳枝나 宮詞, 次耕織圖韻 등도 포함)도 모두 죽지사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은 그보다 한정적이다. 특히 棹歌는 그 자체로 詩體의 연원을 지니고 있다. 도가의 변화과정, 소재(읍는 지역이나 처지)의 한계 등을 미루어 볼 때 죽지체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¹⁴⁾ 耕織圖 등을 보고 쓴 시는 거의 제화시의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성격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b. 7언 4구의 형태 + '기속'의 소재

죽지사의 詩格에 대해서도 분분하다. 7언 4구임에도 근체시와는 달리 격률이 엄격하지 않다, 詩語에 民歌의 정서를 많이 포함한 俚言, 方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불분명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7언 4구 형태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다.

아울러 7언 4구속에 어떤 소재를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이미 특정한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지역의 토속색사를 내포해야 할 것이다. 또는 詩序나 제목, 시인의 自註에서 '竹枝體'를 본떠지었다는 언급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상 작품의 성격 여부를 막론하고, 집성 작업의 관건은 協業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 역시 필자의 寡聞함에 바탕하였기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선별 기준이란 것 역시 많은 유사 자료를 섭렵하고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마련이다.

14) 葉華, 「竹枝詞의名, 實問題與中國風土詩歌演進」(『中國社會科學』, 2014.)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피력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 논지에 동의하는 바이다.

기초 조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구축된 DB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나 한국학종합DB(<http://db.mkstudy.com/>)의 입력 원문 및 원본 대조를 적극 활용한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초 단계 작업이다. 구축된 DB를 활용한 기계적 취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 작업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제시한 기준들을 검색어에 적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아직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여항문학총서』(이 가운데 일부는 고전번역원에서 원문 입력 자료 제공 중)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족지사류 목록 샘플은 다음과 같다.

sample 1.【竹枝詞, 竹枝歌, 竹枝】

구분	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1	李齊賢	僕謂劉賓客作竹枝歌(2)	竹枝	국내	益齋亂稿
2	金宗直	凝川竹枝曲九章(9)	竹枝曲		佔畢齋集
3	金時習	竹枝詞 三絶(3)	竹枝詞		梅月堂詩集
4	成俔	竹枝詞 十首(10)	竹枝詞		虛白堂風雅
5	俞好仁	西原竹枝三絶(3)/五言小詩	竹枝		潘谿集
6	俞好仁	咸陽濫潘竹枝曲 十絶(10)	竹枝曲		潘谿集
7	李荇	雨竹.用雪壓竹枝韻	竹枝		容齋先生集
8	許蘭雪軒	竹枝詞(4)	竹枝詞		蘭雪軒詩集
9	申欽	昭陽竹枝歌三章(3)	竹枝歌		象村稿
10	權譚	春江詞效竹枝歌 二首(2)	竹枝歌		石洲集
11	李春元	竹枝詞 三疊(3)	竹枝歌		九畹先生集
12	李春元	竹枝詞 三疊(3)	竹枝歌		九畹先生集
13	丁若鏞	竹枝歌	竹枝歌		茶山集
14	崔鳴吉	用前韻竹枝詞三疊(3)	竹枝詞		遲川先生集
15	崔鳴吉	效竹枝詞	效竹枝		遲川先生集
16	崔鳴吉	竹枝歌(2)	竹枝歌		遲川先生集
17	李匡德	夢傳竹枝詞	竹枝詞		冠陽集
18	趙秀三	上元竹枝詞(15)	竹枝詞		秋齋集
19	南公轍	竹枝詞	竹枝詞		金陵集

구분	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20	成海應	竹枝詞	竹枝詞		研經齋全集
21	成海應	咏土俗之傲燕者。用替竹枝(8)	竹枝		研經齋全集
22	李學奎	金官竹枝詞(30)	竹枝詞		洛下生集
23	趙秉鉉	和崔生載奎竹枝詞五疊(5)	竹枝詞		成齋集
24	趙秉鉉	又和竹枝詞四疊(4)	竹枝詞		成齋集
25	洪翰周	讀尤侗外國竹枝詞。戲成一絕	竹枝		海翁詩藁
26	朴珪壽	江陽竹枝詞十三首(13)	竹枝詞		嘯齋先生集
27	李裕元	臨瀛竹枝詞 十首(10)	竹枝詞		嘉梧藁略
28	李裕元	岐城竹枝詞(20)	竹枝詞		嘉梧藁略
29	李裕元	作伽川竹枝曲 九首(9)	竹枝曲		止止堂詩集
30	李洪男	楊花渡竹枝歌 八章(8)	竹枝歌		汲古遺稿
31	趙纘韓	竹枝詞	竹枝詞		玄洲集
32	曹文秀	竹枝詞(5)	竹枝詞		雪汀詩集
33	金德承	次柳子厚竹枝歌韻	次竹枝韻		少痊公文集
34	崔承太	竹枝詞(2)	竹枝詞		雪蕉遺稿
35	申厚載	龍潭竹枝詞	竹枝詞		葵亭集
36	金時敏	三疊。和栢堂。效竹枝體。(3)	效竹枝體		東圃集
37	范慶文	效白香山竹枝詞 二首(2)	效竹枝詞		儉巖山人詩集
38	任天常	雨後次劉禹錫竹枝詞	次竹枝詞		窮悟集
39	曹夏望	竹枝詞(5)	竹枝詞		西州集
40	鄭栻	竹枝詞	竹枝詞		明庵集
41	黃後鞞	戲吟竹枝	竹枝		夷峯先生文集
42	申國賓	凝川教坊竹枝詞八章 並小叙(8)	竹枝詞		太乙菴文集
43	趙孝承	效竹枝詞體	效竹枝體		退軒集
44	范慶文	效白香山竹枝詞(2)	效竹枝詞		儉巖山人詩集
45	洪仁謨	竹枝詞。效晚唐體。	竹枝詞		足睡堂集
46	姜浚欽	關西竹枝詞	竹枝詞		三溟詩集
47	趙冕鎬	竹枝 三首(3)	竹枝		玉垂先生集
48	趙冕鎬	傲巖社竹枝(3)	竹枝		玉垂先生集
49	趙冕鎬	鎮嘉竹枝 (10)	竹枝		玉垂先生集
50	趙冕鎬	弘濟竹枝(3)	竹枝		玉垂先生集
51	趙冕鎬	金官竹枝三疊(3)	竹枝		玉垂先生集
52	趙冕鎬	竹枝(2)	竹枝		玉垂先生集

구분	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53	趙冕鎬	龍灣竹枝(20)	竹枝		玉垂先生集
54	趙冕鎬	機務竹枝(3)	竹枝		玉垂先生集
56	趙冕鎬	用竹枝韻。又賦一絕	用竹枝韻		玉垂先生集
57	趙冕鎬	追補龍灣竹枝(5)	竹枝		玉垂先生集
58	趙冕鎬	竹枝(15)	竹枝		玉垂先生集
59	趙冕鎬	後竹枝(3)	竹枝		玉垂先生集
60	趙冕鎬	竹枝(5)	竹枝		玉垂先生集
61	趙冕鎬	續竹枝(3)	竹枝		玉垂先生集
62	申錫愚	伊珍竹枝 二十首(20)	竹枝		海藏集
63	姜潛	帶方竹枝	竹枝		對山集
64	姜潛	阿珍竹枝	竹枝		對山集
65	朴致馥	戲作金陵竹枝詞十二章(12)	竹枝詞		晚醒集
66	張錫英	竹枝詞一闕	竹枝詞		晦堂集
67	孔學源	竹枝詞	竹枝詞		道峰先生遺集
68	李炳鯤	竹枝詞	竹枝詞		退修齋集
69	吳達運	竹枝詞	竹枝詞		海錦集
70	鄭東植	竹枝詞	竹枝詞		慕隱遺稿
71	崔鳴吉	竹枝歌	竹枝歌		遲川集
72	鄭栻	竹枝詞	竹枝詞		明庵集
73	陸用鼎	竹枝詞	竹枝詞		續稿
74	張之琬	平壤竹枝詞(75)	竹枝詞		斐然箱抄
75	徐應潤	竹枝詞二首	竹枝詞		徐孺子文集
76	洪顯周	柳京竹枝詞	竹枝詞		海居齋詩鈔
77	曹夏望	竹枝詞(四首)	竹枝詞		西州集
78	李祥奎	道川竹枝詞	竹枝詞		惠山集
79	金孟性	伽川竹枝曲	竹枝曲		止止齋先生詩集
80	成倪	竹枝詞十首	竹枝詞		風雅錄
81	南龍萬	效唐詩體-竹枝詞	竹枝詞		活山文集
82	李堉	南海竹枝九絕(9)	竹枝		朗山先生文集
83	朴遠鍾	羣山竹枝詞六首(6)	竹枝詞		直庵遺集
84	朴遠鍾	晉陽竹枝詞十二絕(12)	竹枝詞		直庵遺集
85	李琢源	西京竹枝詞八首(8)	竹枝詞		守庵集
86	權宅容	大坪竹枝詞(十二首)(12)	竹枝詞		惕窩遺稿

구분	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87	崔東泰	效竹枝詞體贈盧竹農二十首(20)	效竹枝體		日溪集
88	鄭載星	擬賦娥林竹枝詞六十八章(68)	竹枝詞		荀齋文集
89	趙時琢	竹枝詞	竹枝詞		閩巷文學叢書/ 風謠續選
90	尹廷琦	金陵竹枝詞(22)	竹枝詞		舫山詩藁
91	張之琬	平壤竹枝詞(85)	竹枝詞		斐然箱抄(장서각 소장)
91	崔永年	海東竹枝(308)	竹枝		海東竹枝
92	李民成	登州竹枝歌三絕 次石樓臺韻(3)	竹枝歌	중국	敬亭先生集
93	申維翰	日東竹枝詞七言三十四首(34)	竹枝詞	일본	靑泉集
94	趙秀三	外夷竹枝詞(122)	竹枝詞	외국	秋齋集
95	趙秀三	海甸竹枝詞(5)	竹枝詞	중국	經畹叢集
96	李尙迪	日本畫生南畹 ~ 以備竹枝一體 (20)	竹枝詞	일본	恩誦堂集續集
97	李裕元	異域竹枝詞(30)	竹枝詞	외국	嘉梧藁略
98	金奩準	和國竹枝詞(5卷)	竹枝詞	일본	紅藥樓詩集

sample 2. 【○○雜詠, ○○雜詩, ○○雜事詩, ○○雜絕, ○○紀行詩】

구분	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1	柳得恭	松京雜絕 九首(9)	雜絕	국내	冷齋集
2	柳得恭	熊州雜絕 三首(3)	雜絕		冷齋集
3	柳得恭	西京雜絕 十五首(15)	雜絕		冷齋集
4	柳得恭	永春雜絕 三首(3)	雜絕		冷齋集
5	朴齊家	瀋陽雜絕 (7)	雜絕		貞葵閣集
6	朴齊家	旅次雜絕(13)	雜絕		貞葵閣集
7	李書九	梁園雜絕 二首(2)	雜絕		惕齋集
8	金進洙	高興雜絕	雜絕		蓮坡詩鈔
9	李尙迪	葛山雜絕(2)	雜絕		恩誦堂集
10	李尙迪	四美園雜絕	雜絕		恩誦堂集
11	金允植	筏橋雜絕 四首(4)	雜絕		雲養集
12	金允植	西京雜絕 四首(4)	雜絕		雲養集
13	金時保	江上雜絕(5)	雜絕		茅洲集
14	金時保	入峽雜絕 示太冲(5)	雜絕		茅洲集
15	金時保	舟中雜絕(4寸)	雜絕		茅洲集
16	金時保	洛山寺雜絕(7寸)	雜絕		茅洲集

구분	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17	金時保	松京雜絕 十二首(12)(시+시주)	雜絕		茅洲集
18	崔成大	梅花雜絕(7수)	雜絕		杜機詩集
19	崔成大	蘇忽音雜絕(4수)	雜絕		杜機詩集
20	趙冕鎬	雜絕(2수)	雜絕		玉垂先生集
21	趙冕鎬	紅白蓮雜絕 六首(6)	雜絕		玉垂先生集
22	趙冕鎬	西事雜絕 并小識 (시+시주)	雜絕		玉垂先生集
23	趙冕鎬	後西事雜絕 并小識 (시+시주)	雜絕		玉垂先生集
24	李壽瑩	西洲雜絕	雜絕		曉山集
25	李壽瑩	寧州雜絕	雜絕		曉山集
26	朴宗善	京都歲時詞(40)	歲時詞		菱洋詩集
27	柳得恭	二十一都壤古詩(43)시+시주	懷古詩		冷齋集
27	李廷燮	赤城雜絕(6)	雜絕		樗村集
28	金義賢	西行雜絕(5)	雜絕		庸齋稿
29	馬聖麟	上元(6)	上元		安華堂私集
30	馬聖麟	除夕(4)	除夕		安華堂私集
31	馬聖麟	正朝(4)	正朝		安華堂私集
32	柳晚恭	歲時風謠(196)시+시주	歲時風謠		閭巷文學叢書
33	趙雲從	歲時紀俗(16)시+시주	歲時紀俗		勉菴遺稿
34	金鏞	上元俚曲(25)시+주	俚曲		潭庭集
35	姜必愼	上元紀俗十四絕(14)	紀俗		慕軒集
36	姜必愼	元朝紀俗二十絕(14)	紀俗		慕軒集
37	李學奎	金官紀俗詩(78)시+시주	紀俗詩		洛下生集
38	洪爽周	紀俗絕句 十一首(11)	紀俗絕句		淵泉集
39	金允植	歸川紀俗詩 二十首(20) 시+시주	紀俗詩		雲養集
40	姜樸	元朝紀俗(20)	紀俗		菊圃集
41	姜樸	寒食紀俗(4)시+시주	紀俗		菊圃集
42	申錫愚	平壤懷古	懷古		海藏集
43	成倪	玉河橋雜絕(2)	雜絕		虛白堂集
44	俞好仁	東都探錄(25)	雜絕		潘谿集
45	俞好仁	觀音窟雜絕(5)	雜絕		潘谿集
46	俞好仁	關西雜絕(4)	雜絕		潘谿集
47	奇遵	穩城雜絕(30)	雜絕		德陽遺稿
48	鄭階敬	嶺東雜絕	雜絕		松江集

구분	저자	서명	표기	지역	출전
49	白光勳	龍湖雜詠	雜詠		玉峯集
50	李山海	南州雜詠 四首(4)	雜詠		鵝溪遺稿
51	崔慶昌	東湖雜詠	雜詠		孤竹遺稿
52	柳瀟	龍灣雜詠(3)	雜詠		醉吟集
53	金尙憲	鰲山雜詠(8)	雜詠		清陰集
54	金錫胄	龍灣雜詠十絶和副使(10)	雜詠		息庵遺稿
55	徐宗泰	羅山雜詠(8)	雜詠		晚靜堂集
56	徐宗泰	箕城雜詠 十首(10)	雜詠		晚靜堂集
57	徐宗泰	龍灣雜詠十首次息菴集中龍灣十絶韻(10)	雜詠		晚靜堂集
58	金昌翁	葛驛雜詠(176)	雜詠		三淵集
59	趙秀三	茶山館雜詠(10)	雜詠		經畹叢集
60	趙秀三	隴城雜詠(10)	雜詠		秋齋集
61	趙秀三	安州雜詠(3)	雜詠		秋齋集
62	趙秀三	松京道中雜詠(8)			
63	張之琬	平壤竹枝詞(20)	雜詠		秋齋集
64	趙秀三	瀋陽雜詠(10)	雜詠		秋齋集
65	趙秀三	瀋河雜詠(3)	雜詠		秋齋集
66	趙文命	瀋陽雜詠 十絶 (10)	雜詠		(趙文命)燕行錄
67	柳得恭	遼野車中雜詠 (33)	雜詠		冷齋集
68	李始源	遼野雜詠(29)	雜詠		赴燕詩
69	李肇源	關外雜詠(40)	雜詠		黃梁吟
70	洪錫謨	西山雜詠七首(7)시 + 시주	雜詠		游燕藁
71	洪錫謨	皇城雜詠一百首(100)시 + 시주	雜詠		游燕藁
72	洪錫謨	濱城雜詠(37)	雜詠		游燕藁
73	朴齊家	瀋陽雜絶(7)	雜絶		貞葵閣三集
74	柳得恭	熱河紀行詩注(49제 74수)시 + 시주	紀行詩		溟陽錄/ 熱河紀行詩註
75	金進洙	燕京雜詠(314)시 + 시주 + 평	雜詠		碧蘆集
76	姜瑋	蔚州雜絶(4)	雜絶		古歡堂收吟詩稿
77	申錫愚	邊門雜絶	雜絶	海藏集(入燕記)	
78	金允植	東京雜絶 十首(10)	雜絶	일본	雲養集

cf) ['죽지사 제목 외](대조근; 중국 『역대죽지사』, 『중화죽지사전편』 발췌)

구분	저자	서명	표기
1	楊萬里(宋)	「圩丁詞十解」	詞
2	周霆震(元)	「城西放歌」	歌
3	倪瓚(元)	「雅宜山詩」	詩
4	鄭璠(明)	「題農務女紅之圖」 30수	題·圖
5	蘇祐(明)	「江中雜興十首」	雜興
6	王琬(清)	「邨居十四首」 有小序	
7	王沆(清)	「津門雜事詩」	雜事詩
8	袁枚(清)	「溫州坐筵詞」 有序	詞
9	王鳴盛(清)	「練川雜詠」	雜詠
10	王鳴韶(清)	「練川雜詠和韻」	雜詠
11	張曾敏(清)	「縣中雜詠」	雜詠
12	姚思勤(清)	「東河權歌」	權歌
13	翁霍霖(清)	「南廣雜詠二十一首」	雜詠
14	倪象占(清)	「鄆南雜句」 有序	雜句
15	遠鈞(清)	「鄆北雜詩」 有序	雜詩
16	劉開兆(清)	「消夏雜詩」 有序	雜詩
17	崔旭(清)	「津門百詠」	百詠
18	崔旭(清)	「太原雜詠」	雜詠
19	佚名(清)	「燕臺口號一百首」 並引	口號
20	將詩(清)	「沽河雜詠」	雜詠
21	鄭開禧(清)	「南臺雜詩」	雜詩
22	楊靜亭(清)	「都門雜詠」	雜詠
23	徐志(清)	「送瓜」	
24	林溥(清)	「西山魚唱」	魚唱
25	阮先(清)	「赤湖雜詩」	雜詩
26	阮充(清)	「赤湖雜詩」	雜詩
27	無名氏(清)	「都門雜詠」	雜詠
28	何如璋(清)	「使東雜詠」	雜詠
29	蔡雲(清)	「吳歎百絕」	百絕
30	李焯(清)	「蠶詞」	蠶詞
31	黃遵憲(清)	「日本雜事詩」	雜事詩
32	顧印愚(清)	「府江權歌十二首」 并序	權歌
33	嘯西復農氏(清)	「都門紀變百詠」	百詠
34	郁華(清)	「東京雜事詩」	雜事詩
35	濯足扶桑客(清)	「增註東洋詩史」	詩史
36	石德芬(清)	「疊克雜詠」 並序	雜詠
37	別文樞(清)	「燕京詠古二百四十首」	詠古

2. 공동 작업 및 분류

집성 작업이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인 만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죽지사류 선별과 분류에 있어 제목과 형식(7언 4구)을 기본적인 충족요건으로 함과 동시에 소재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위에서 제시한 목록화 작업 이후 각 죽지사의 소재별 분류가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시도할 수 있다.

소재 구분	주요내용
지역 (국내/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일 경우 제목에 지명을 포함, 지역성을 포함한 건축물, 사찰명, 명승지 등까지 포함. · 국외일 경우 연행록이나 통신사 기록까지 수집 범주를 확대. (특히 해외전문소재 죽지사의 경우 지역의 풍속과 풍광 죽지사라는 형식이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 되었는지 분석 가능. 장르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중국 문화양식의 우리화 과정을 추적)
인물 (국내/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지사 소재의 확대 및 변주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일례로 「추재기이」는 영사악부와 죽지사의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 회인시(懷人詩)의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김석준, 이상적, 남병철, 조면호의 회인시는 7언 4구 형식을 고수. 당시 문학 인사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자, 그 수록 범위가 중국 및 일본 문인들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기속 (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고유한 역사나 풍속에 대한 관심이 가장 잘 드러난 소재는 '세시풍속' · 제목에 원조, 상원, 한식 등 歲時紀俗을 명시한후, 7언 4구로 지어진 경우. 대개 산문으로 주를 달고, 7언 4구의 시로 마무리하는 細詩 형태의 죽지사 혹은, 연작 죽지사의 형태를 띤다.¹⁶⁾

15) 이에 대한 논의는 『추재기이』(안대회 역, 한겨레출판사, 2015.)의 서문에서 논한 바 있다.

16) 장유승 역시 『동국세시기』(홍석모 저, 장유승 역해, 아카넷, 2016.)의 해제에서 세시를 소재로한 7언 4구의 기속시를 죽지사에 포함시켜 논한 바 있다.

Ⅲ. 남는 문제 및 기대효과

표료 제시한 죽지사류 작품들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초 조사의 중요성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분류의 방식의 세심한 구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시대, 계층(사대부/중인/여성), 지역(국내;각 도별)(국외;일본/중국/유구/베트남)¹⁷⁾ 등으로 한 층 정치하게 분류된다면 사료적 가치는 확장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여전히 죽지사 기원과 명칭이 모호한 가운데 '한국 악부 자료집성'을 광범위 하게 진행한 후 그 하위분류로서 죽지사가 포함되는 과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신광수의 『관서악부』 108수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여부가 명료해지는 것이다.

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도출한 결론 또한 미완에 가깝지만, 다음 몇 가지 항목에 관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의 경우 『중화죽지사』전편, 『역대죽지사』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 죽지사 자료가 집성될 경우 기존 죽지사 연구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연구 방법 모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교군(국,내외)이 형성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논의에 대한 확증(혹은 점검)등도 병행이 가능하다. 궁극으로, 한국 漢詩史라는 전체 구도 속에서 죽지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점검 내지는 비정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죽지사 변화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죽지사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가능하다. 죽지사는 조선 후기 소외된 지식인 계층의 향유물로 간주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¹⁸⁾ 이는 조선 후기에 대거 등장하는 죽지사가 '계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행문학총서』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이 건

17) 현재 구축 중인 연행록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각 지역의 풍물을 죽지사 형식으로 읊은 연행시까지 포함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8) 정숙인, 앞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해가 적확하지는 않다. 일부 저자의 문학적 기호에 기반 한 것인지, 실제로 계층성을 찾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 집성 과정 중에 선별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죽지사라는 형식과 풍속을 다룬 기속시들 간의 상호작용 지점과 변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위주 선생이 지적한『악부신성』의 특징은 매우 의미가 있다. 죽지사 전통적인 제채였던 사랑, 이별, 상사, 원망이 조선의 풍속과 농가의 삶, 서민의 애환 등을 그려내는 소재로 외연을 넓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 이 집성을 기점으로, 시화 집성, 죽지사 집성 한시의 등 漢詩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모색, 장르별로 확장이 가능하다. (예) <https://sou-yun.com/>)

부 록

* 자료 집성을 위해 필자가 참고한 국내 죽지사 관련 연구 논문 (연도 순)을 따로 정리해 부기한다.

- 장효현, 「朝鮮 後期 竹枝詞 研究」, 『韓國學報』 10집, 1984.
- 장효현, 「徐有英의 竹枝詞에 關한 高찰」, 『工業技術研究所論文集』 4집, 1985.
- 김성진, 「이학규의 「금관죽지사」 연구」, 『문창어문논집』 26집, 1989.
- 홍인표, 「죽지사(竹枝詞)연구」, 『中國學報』 33집, 1993.
- 전청순, 「朝鮮後期 日本竹枝詞 研究」, 釜山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 한은수, 「환재 박규수의 詩文學 研究 : 「鳳韶餘響絕句」와 「江陽竹枝詞」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제희, 「韓國竹枝詞 研究」, 仁荷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 정숙인, 「『해동죽지(海東竹枝)』에 나타난 세시풍속(歲時風俗) 고찰(考察)-「명절풍속(名節風俗)」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33권 제4호, 2005.
- 신하운, 「죽지사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36집, 2005.
- 신하운, 「18세기 조선문인의 세계인식과 문화적 형상화 - 추재(秋齋)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7집, 2005.
- 김영죽,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 소고」, 『민족문화사 연구』 36호, 2008.
- 신은경,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 연구」, 『국제어문』 42집, 2008.
-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영죽, 「추재(秋齋)의 기속(紀俗)에 대한 관심과 기록 - 「세시기(歲時記)」, 「상원죽지사(上元竹枝詞)」를 중심으로-」, 『泮矯語文研究』 24집, 2008.
- 김영죽,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죽지사류(竹枝詞類) 창작(創作)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漢文學報』 21집, 2009.
- 김영죽, 「조선 후기 죽지사(竹枝詞)를 통해본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의 타자(他者) 인식 - 조선 후기 서리(胥吏) 출신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죽지사류(竹枝

- 詞類) 작품 연구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24집, 2011.
- 박은옥, 「죽지사(竹枝詞)의 한·중 비교 연구」, 『韓國音樂史學報』 47집, 2011.
- 하경심, 「『澳門記略』을 통해 본 「竹枝詞」의 기능과 수용」, 『중국어문학논집』 72권, 2012.
- 김현녀, 「金進洙 「燕京雜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보성, 「18·19세기 죽지사(竹枝詞)에 담긴 동아시아 지식 정보의 한 조각」, 『漢文學報』 28집, 2013.
- 안미정, 「李學逵의 「金官竹枝詞」·「金官紀俗詩」 研究翻譯」,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박혜민, 「조선후기 유럽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 - 「외이죽지사」와 「이역죽지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집, 2016.

〈參考 文獻〉

『新唐書』

王愼之·王子今 輯, 『清代海外竹枝詞』, 북경대학출판사, 1994.

김영죽, 「추재 조수삼의 죽지사류 창작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보』 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신하운, 「죽지사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제3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심경호, 「해동악부체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정숙인, 『해동죽지(海東竹枝)』에 나타난 세시풍속(歲時風俗) 고찰(考察)－「명절풍속(名節風俗)」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33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조수삼 저·안대회 역, 『추재기이』, 한겨레출판사, 2015.

홍석모 저·장유승 역해, 『동국세시기』, 아카넷, 2016.

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葉華, 「竹枝詞的名, 實問題與中國風土詩歌演進」, 『中國社會科學』, 2014.

王利器·王愼之·王子今 輯, 『歷代竹枝詞』 5책, 섬서성인민출판사, 2003.

李良品, 「竹枝詞源流考」, 『重慶教育學院學報』 13집, 2000.

孫杰, 「竹枝詞發展史」, 復旦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12.

搜韻 (<https://sou-yun.com>)

Abstract

Necessity and Meaning of Data Collection on Bamboo-branch Poems

Kim, Young-jook^{*}

This paper is a brief inquiring into the writing process and its purpose of Bamboo poems and pursuing its meaning and position in the literary circle of that time.

At large from the late eighteenth to early nineteenth century, quantities of knowledge were explosively expanded and the intellectuals tended to write information/knowledge by the form of encyclopediac and memoranda style.

However, wrote 「Record of the Extraordinary」 which depicted the lives and customs of folks by adopting the form of combining prose with poem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And one more, impacts from traditional Chinese Bamboo poems. Simply put, his unique careers and social situation made him pursue not only literary accomplishment but also information delivery and accordingly he took a choice of a form of Bamboo poems, which was a kind of response to task of the time.

【Key words】 Writing of Bamboo poems, To record information/knowledge, Traditional Chinese Bamboo poems, DATABASE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22일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nior researcher, Ph.D. / wenzue@hanmail.net

